

BARINGS

사모 대출

다이렉트 렌딩 시장에 대한 이해

INSIGHTS

최근 사모 대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부 전략에 따라 특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들마켓(middle market) 다이렉트 렌딩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뉴스에 주목하기보다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다이렉트 렌딩이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줍니다.



타일러 게이들리
북미 다이렉트 렌딩 대표



스튜어트 매티슨
유럽 사모 대출 대표

최근 사모 대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매력이 부각되면서,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사모 대출 투자, 특히 다이렉트 렌딩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투자 전략)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신용 이벤트나 일부 자금 흐름 변화와 관련된 특정 이슈들이 부각되며 관련 뉴스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 사이클 전반에서 다이렉트 렌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적인 미들 마켓(middle market) 다이렉트 렌딩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중심의 구조, 계약 기반 수익 창출, 그리고 하방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집중 등 다이렉트 렌딩의 핵심 특징은 이 전략이 장기 포트폴리오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다이렉트 렌딩의 정의

전통적인 스폰서 기반 미들 마켓 다이렉트 렌딩은 보다 광범위한 사모 대출 시장 내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는 투자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기반이 안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선순위 담보대출(주로 1순위 담보대출)**로 구성되며, 계약 기반 수익 구조와 채권자 보호 장치, 그리고 원금 보전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운용사별로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적인 특성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유지됩니다:

- 대출 자산에 대해 우선 청구권을 갖는 **선순위 담보 대출(대체로 1순위 중심)**
- 재무 약정 및 보고 의무 등을 포함한 **협상 기반 채권자 보호 장치**
- 검증된 사모펀드(PE)가 참여하는 **스폰서 기반 거래 구조**
- **변동금리 기반의 계약형 수익 구조**
- **딜 소싱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운용사의 역량**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

다이렉트 렌딩은 대부분 투자등급 이하의 신용자산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특성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발행사 및 섹터 전반에 대한 분산 투자, 엄격한 대출 심사, 그리고 대출기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방식에 따라 투자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보고 체계와 채권자 보호 장치를 기반으로 대출기업과 스폰서 모두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투자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선순위 대출은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수익 확대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일부 추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레버리지 수준을 높이거나 구조적 보호장치를 완화할 경우, 시장 여건 악화시 상당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점과 변하지 않은 점

사모 대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진화해 왔지만, 전통적인 다이렉트 렌딩이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핵심적인 특성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점

다이렉트 렌딩은 **구조적으로 선순위 대출**에 기반하고,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유지 약정과 기타 구조적 보호 장치는 **조기 대응과 하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이나 투자자 자금 흐름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공모 시장과 달리, 다이렉트 렌딩의 성과는 기본적인 신용 분석과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보다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엄격한 재무 약정과 보수적인 레버리지**는 수익성에 압박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운용의 유연성을 유지**하게 하는 반면, 구조가 취약한 투자일수록 그 한계가 빠르게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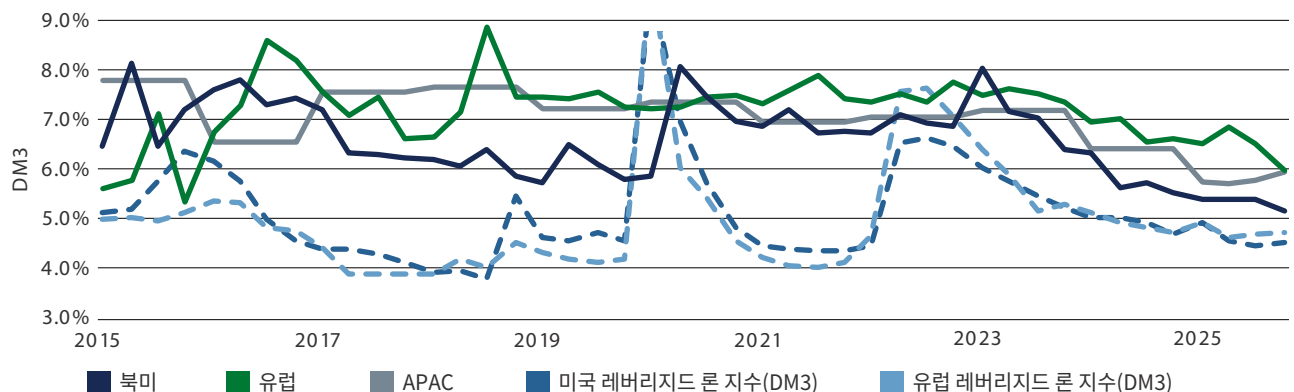
또한 다이렉트 렌딩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모 대출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및 유동성이 높은 공모 크레딧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습니다.

상대가치 측면에서도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공모 크레딧 시장 대비 스프레드 프리미엄은 지역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 **북미**는 가장 규모가 크고 성숙한 시장으로, BSL(Broadly Syndicated Loan) 대비 평균 약 175~200bp 수준의 스프레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장에서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투자자 구성이 변화하면서, 이전보다 타이트했던 수준에서 스프레드가 다소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¹
- **유럽 및 선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은행의 대출 축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약 조건에 대한 관리 또한 보다 엄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BSL 대비 스프레드 차이는 **유럽에서 약 200~250bp, 선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약 200~350bp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²

레버리지 배수 당 스프레드(spread-per-turn-of-leverage) 기준으로 볼 때, 다이렉트 렌딩의 보상 수준은 BSL 시장 대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낮은 레버리지와 보다 엄격한 구조, 그리고 강력한 채권자 보호장치는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경기 사이클에 따라 스프레드의 절대 수준이 변동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경쟁력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표 1).

도표 1: 다이렉트 렌딩은 지역 전반에서 구조적인 수익률 프리미엄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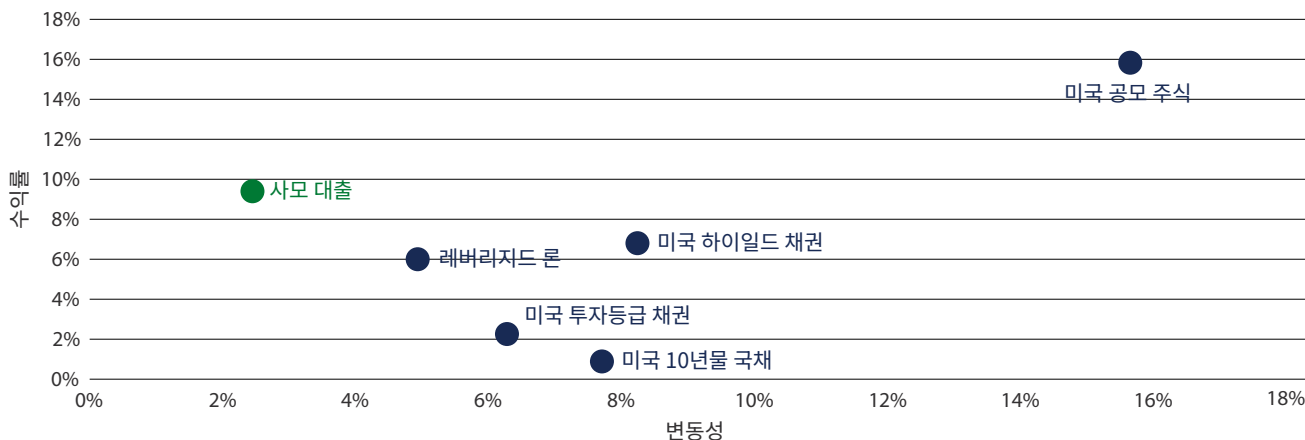


출처: S&P UBS 레버리지드 론 지수; 베어링. 베어링의 투자 집행은 각 지역에서 해당 분기 동안 완료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값임. 2026년 2월 기준.

1. 출처: Barings; LSTA. 데이터는 2022년 1분기~2026년 1분기 기준.
 2. 출처: Barings; LSTA. 데이터는 2022년 1분기~2026년 1분기 기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이렉트 렌딩을 BSL, 하이일드 채권, 투자등급 채권 등과 함께 포트폴리오 내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평가하며, 기대 수익과 변동성, 하방 리스크 간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도표 2). 이러한 관점에서 사모 대출은 Cliffwater 다이렉트 렌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수익률을 제공해 왔습니다. 사모 대출의 비유동성 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투자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표 2: 사모 대출은 낮은 변동성과 함께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



출처: Cliffwater; Morningstar Direct. 데이터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연간 총수익률을 기준으로 함. 변동성은 연간 총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 각 자산군은 다음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 “사모 대출”—Cliffwater Direct Lending Index; “레버리지드 론”—Morningstar LSTA LL100; “미국 투자등급 채권”—Bloomberg U.S. Aggregate; “미국 하이일드 채권”—Bloomberg U.S. Corporate High Yield; “미국 10년물 국채”—ICE BofA Current 10-Y U.S. Trsy; “미국 공모 주식”—S&P 500. 과거의 운용 성과는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 투자자의 다이렉트 렌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나 리테일 시장에서의 일부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수익 창출 가능성, 변동금리 구조, 계약 기반 현금흐름, 위험 대비 매력적인 수익 특성 등을 바탕으로 다이렉트 렌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주요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 집행과 자금 모집이 이어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장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다이렉트 렌딩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화된 점

변화된 부분은 무엇보다 시장 구조 자체입니다. 최근 Preqin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렉트 렌딩 자본은 점차 소수의 대형 운용사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검증된 투자 집행 역량과 기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소수의 확립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³

- 북미에서는 2025년 기준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다이렉트 렌딩 거래의 38%를 차지⁴
- 미국 대비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의 경우, 2025년 기준 상위 5개 운용사가 전체 거래의 47%를 수행했으며,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거래의 65%를 차지⁵

3. 출처: Preqin Investor Outlook: 2026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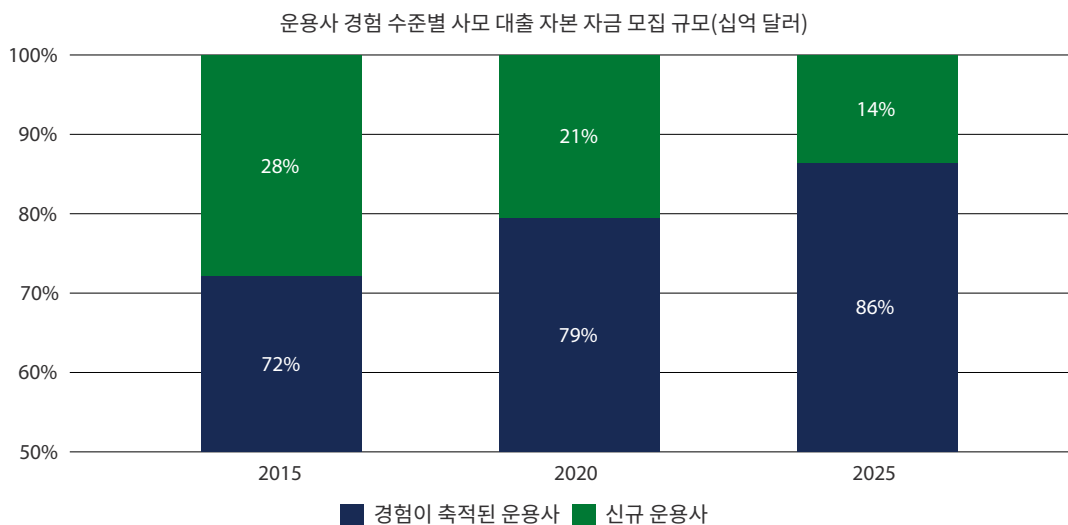
4. 출처: Octus. 2025년 12월 기준.

5. 출처: Houlihan Lokey Q4-2025 MidCap Monitor—European Unitranche Financings Q4 2025 (LTM).

“다이렉트 렌딩 자본은 점차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점점 더 소수의 인프라 기반이 확고한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 집중 현상은 자금 모집 과정에서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운용 경험이 축적된 운용사들이 자본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표 3). 이와 함께 두 번째 구조적 변화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 운용사가 보유한 딜 히스토리와 축적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딜 소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가 크고 운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운용사들은 신규 플랫폼 거래보다는 리파이낸싱, 추가 인수(add-on), 반복 거래 등을 통해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표 3: 경험이 축적된 운용사 중심으로 자금 모집 집중도 확대



출처: Pitchbook (global fundraising). 2025년 12월 31일 기준.

베어링의 경우 현재 애드온(Add-on·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의 추가 인수 또는 확장을 위한 금융) 거래가 전체 투자 집행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플랫폼 거래는 약 42% 수준입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대되는 구조**로, 당시에는 신규 플랫폼 거래가 약 70%, 애드온 거래가 약 30% 수준이었습니다.⁶ 이러한 변화는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비공개(오프마켓)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 집행은 브로드 신디케이트 방식이나 스폰서 주도의 경쟁 입찰 프로세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변동성 국면에서 M&A 및 경쟁 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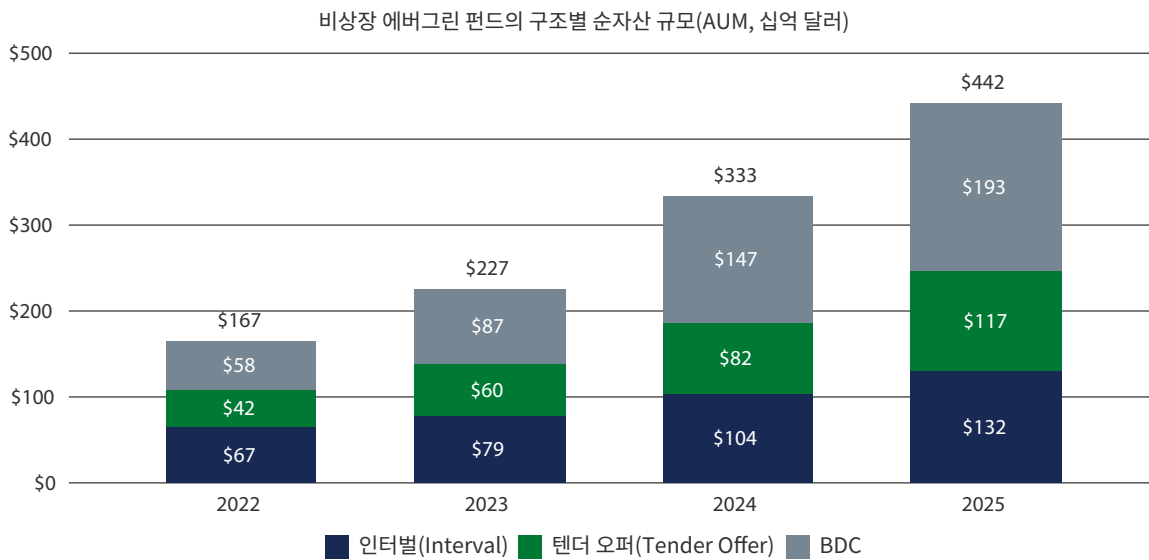
규모와 기존 운용사의 포지션은 **거래 조건과 결과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 기관이 차주와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딜 소싱과 조건 설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채무 재조정(workout) 경로가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구조가 분산되거나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클럽딜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영향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성과가 기대와 다르게 전개될 경우 궁극적으로 누가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6. 출처: Barings. 2026년 3월 31일 기준

리테일 자금의 확대

또 다른 주요 변화는 투자자 기반의 변화로, 자산관리(wealth) 관련 자금이 시장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만기없이 투자자들이 수시로 가입과 환매가 가능한 에버그린(evergreen) 상품과, 일정 주기로 부분 환매가 가능한 준유동성(semi-liquid) 상품의 성장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표 4). 이들 상품의 총 순자산(AUM)은 의미 있게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미국 내 운용 중인 에버그린 펀드의 수도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⁷

도표 4: 미국 내 에버그린 사모 대출 상품의 구조별 성장 추이



출처: Morningstar; PitchBook. 데이터는 2026년 3월 13일 기준으로 집계.

준유동성(semi-liquid)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과 유출은 비교적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스트레스 국면이나 거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과도한 주목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품은 **1.5조 달러를 상회하는 다이렉트 렌딩 전체 AUM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시장 자금의 상당 부분은 환매 압력이 없는 폐쇄형 기관 투자 펀드를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그린 및 폐쇄형 펀드를 포함해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미집행 자금(dry powder)이 존재하며, 은행 역시 상당 규모의 미사용 대출 약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이렉트 렌딩이 여전히 **깊고 안정적인 자본 기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군에 대해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 구성은 변화하고 있지만, 약정 자본과 투자 가능한 자본 규모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어 **유동성 완충 여력 또한 견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웰스(wealth) 채널을 통한 자금 흐름의 변동이 일시적으로 가격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변화만으로 자산군 전반의 스트레스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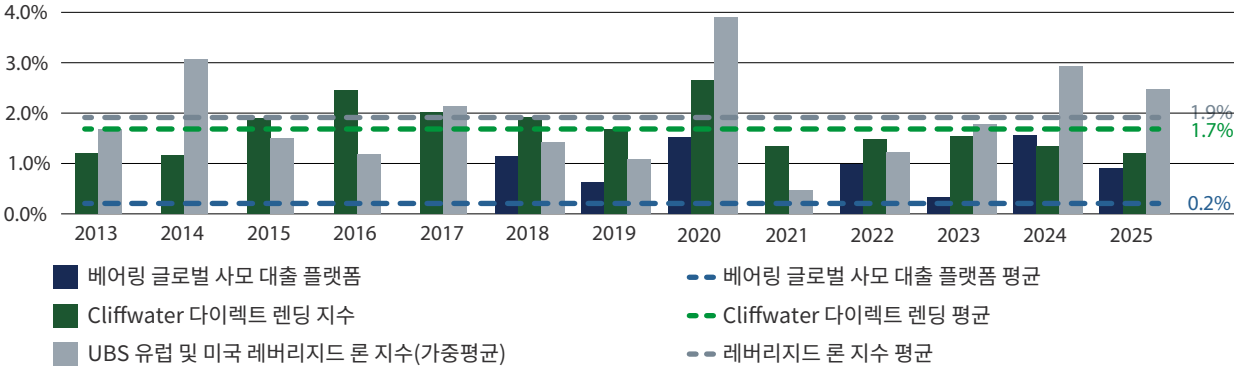
7. 출처: Morningstar; PitchBook. 2026년 2월 28일 기준.

성과 차별화 확대

다이렉트 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재무약정의 질에 대한 중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점점 풍부해지고 있는 반면 접근 가능한 투자 기회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운용사별 접근 방식의 차이는 향후 더욱 뚜렷한 성과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산군 자체의 특성과 운용사별 성과**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모 대출은 선순위 담보대출 중심의 구조와 협상 기반의 채권자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과거 평균 디폴트율이 BSL 시장 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도표 5). 다만 GP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의 질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용사별 디폴트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산군 평균 디폴트율은 **실제 운용시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표 5: 사모 대출과 공보 레버리지드 론의 평균 디폴트율 비교



출처: Barings; Cliffwater; UBS.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이러한 구분은 성과 격차 확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상당 부분 사이클 초기에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에 설정된 레버리지 수준, 계약 문서의 질, 섹터 익스포저 등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은 현재 시장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검증되고 있으며, 자금 집행 시점 또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해 빈티지별 성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다 견조한 포트폴리오는 방어적 특성을 갖추거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기 변동이나 구조적 변화에 취약한 섹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출 심사 기준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가정보다 미래기술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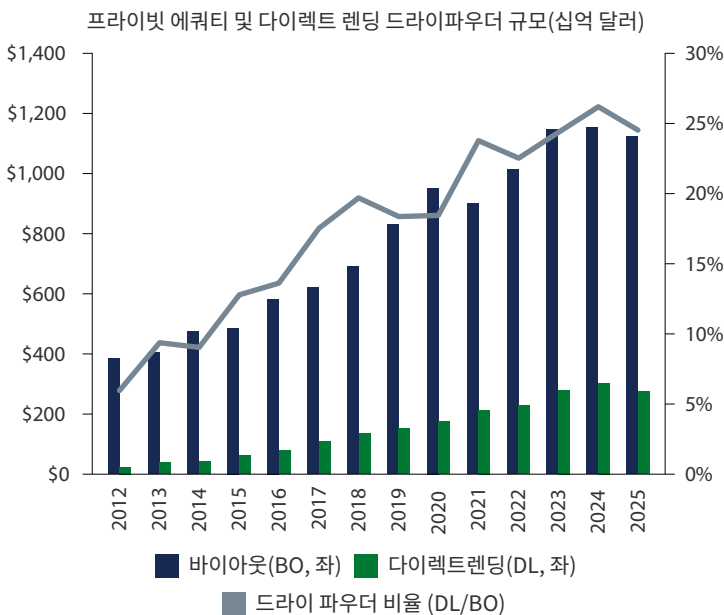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출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자산 배분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몇 가지 장기적인 요인들이 전통적인 다이렉트 렌딩 수요를 여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PE) 주도의 차입 수요

PE 스폰서는 특히 공모 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행의 확실성, 구조적 유연성,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결과**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규모가 변동하는 가운데서도 직접 대출 기관이 맞춤형 구조를 제공하고 자금을 확약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바이아웃 자본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 플랫폼 투자, 애드온 인수, 리파이낸싱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금융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표 6). 그 결과 회수 일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스폰서들이 과거에 조달한 자본을 계속 집행함에 따라 바이아웃 드라이파우더와 다이렉트 렌딩 가용 자본 간의 기존 격차는 향후 수년간 다이렉트 렌딩 수요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표 6: 지속적인 바이아웃 및 다이렉트 렌딩 드라이파우더가 금융 수요를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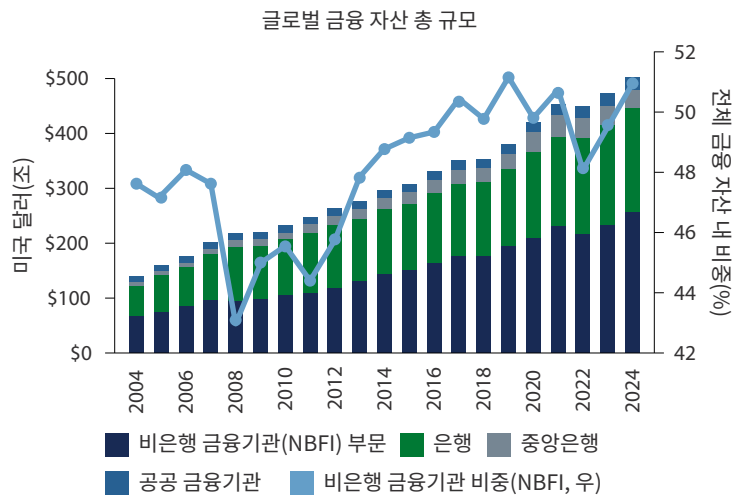
출처: Preqin.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급 제약

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은행이 수행해 온 중개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시장 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비은행 대출 기관이 미들마켓 금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 환경, 강화된 자본 요건, 대차대조표 제약, 그리고 변화하는 리스크 선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일부 신용공급에 대한 의지와 여력이 점차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자산에서 전통적인 은행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이 전체 글로벌 금융 자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 7).

도표 7: 글로벌 금융 자산은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동



출처: Financial Stability Board. 2025년 12월 기준. 비은행 금융기관(NBFI)에는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금, 사모 대출 펀드 및 기타 시장 기반 대출 기관이 포함됨.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

인컴 중심 크레딧 전략에 대한 투자자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구조적 보호 장치와 변동금리 특성을 갖춘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수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상품 유형 및 자금 유입 경로에 따라 자금 흐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보다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다이렉트 렌딩은 여전히 유효한 전략적 자산 배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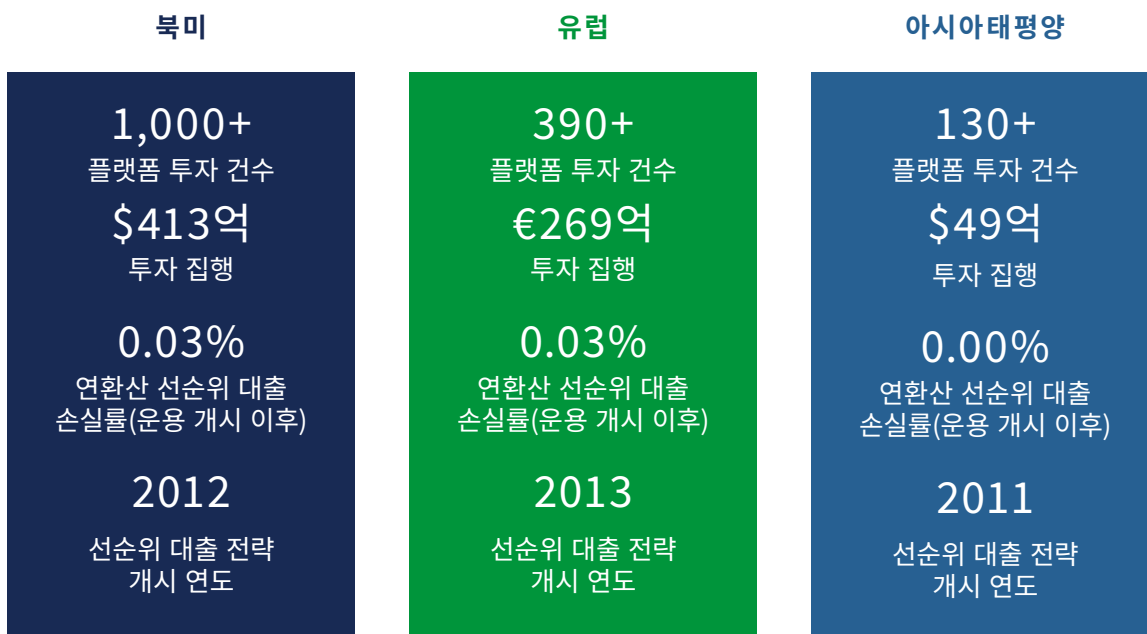
시장 잡음 너머의 본질에 주목

사모 대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시장 움직임들이 과거에 비해 주목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일부 단순화되거나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논의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에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성과를 뭉뚱그려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군 내 중요한 차이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보다 중요한 질문은 변동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변동성이 구조적 손실로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최근 여러 사례에서 가격 조정은 기초 펀더멘털의 전반적인 악화보다는 자금 흐름과 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의해 주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이렉트 렌딩의 포트폴리오 내 역할은 단기적인 시장 뉴스가 아닌 펀더멘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계적인 투자, 선별적인 투자 접근, 딜 통제력 등은 여전히 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 포트폴리오의 필수 전략으로써 전통적인 미들 마켓 다이렉트 렌딩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글로벌 다이렉트 렌딩 플랫폼



2 bps
글로벌 선순위
담보대출 플랫폼
기준 연환산
손실률



30+
미들마켓 투자
경험년수



\$610억+
글로벌 약정 자산



420+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 발행사의 수
(오프마켓 딜 소싱
기반)



30+
컴िंग글드 펀드,
CLO, 영구자본
및 SMA 포함
포트폴리오의 수

2026년 3월 31일 기준.

베어링자산운용은 대체 자산에 강점을 지닌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약 4,81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보험사 및 웰스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의 자회사이며 MS&AD가 지분을 보유한 베어링자산운용은 크레딧, 실물 자산, 캐피털 솔루션 및 이머징 마켓 전반에서 글로벌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초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정보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향후 소득 가치는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서 언급된 투자 결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사례는 단순 참고용이며, 결코 미래 투자 성과 혹은 미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의 구성, 규모 및 위험은 본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와 현저히 다를 수 있으며, 투자의 향후 수익 혹은 손실 여부에 대해 보증 및 보장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할 계획이나(UH형 제외)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채권 투자시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원리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 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베어링자산운용(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베어링자산운용이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투자권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의 어떤 내용도 투자 및 세금, 법적 자문이나 권유 행위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현재 의견 및 예상, 예측에 근거한 예측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예측 정보를 갱신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실제 결과는 예측 자료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여기에 인용된 제 3자로부터 얻은 정보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투자 결정도 본 자료의 정보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베어링은 전 세계 베어링 계열사의 자산운용 및 관련 사업의 상표명입니다. BARINGS LLC, BARINGS SECURITIES LLC, BARINGS (U.K.) LIMITED, BARINGS GLOBAL ADVISERS LIMITED, BARINGS AUSTRALIA PTY LTD, BARINGS JAPAN LIMITED, BARINGS REAL ESTATE ADVISERS EUROPE FINANCE LLP, BARING ASSET MANAGEMENT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 BARING FUND MANAGERS LIMITED, BARING INTERNATIONAL FUND MANAGERS (IRELAND)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BARING SICE (TAIWAN) LIMITED, BARING ASSET MANAGEMENT SWITZERLAND SARL, BARING ASSET MANAGEMENT KOREA LIMITED 등은 BARINGS LLC의 금융서비스 계열사로(단독으로는 “계열사”) “베어링” 으로 통칭합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독자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또는 구체적인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투자자문, 권유, 리서치 또는 특정 증권, 상품, 투자, 투자전략 등의 적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한 권고 아니며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서도 안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전망 또는 예측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베어링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절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언급된 서비스, 증권, 투자 또는 상품은 잠재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관할권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

COPYRIGHT © 2026 BARINGS. 본 자료의 저작권은 베어링에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베어링의 동의 없이 변형,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BARINGS (또는 베어링)과 로고 디자인은 BARINGS의상표이며 미국 및 전 세계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BARINGS 에게 있습니다.

베어링자산운용 컴플라이언스 심사필 제 26-5571228(2026.06.11-2029.06.10)

자세한 사항은 [BARINGS.COM](https://www.barings.com)을 확인하세요.

*2026년 3월 31일 기준